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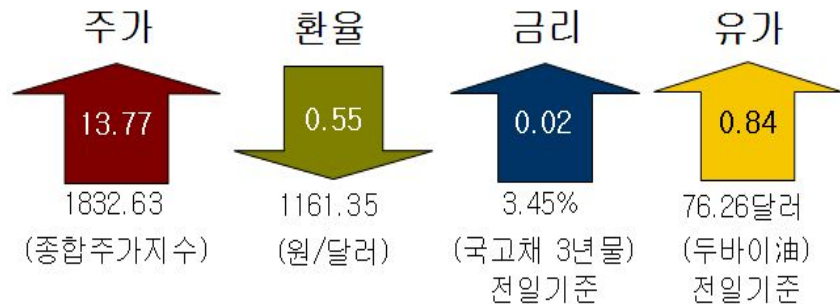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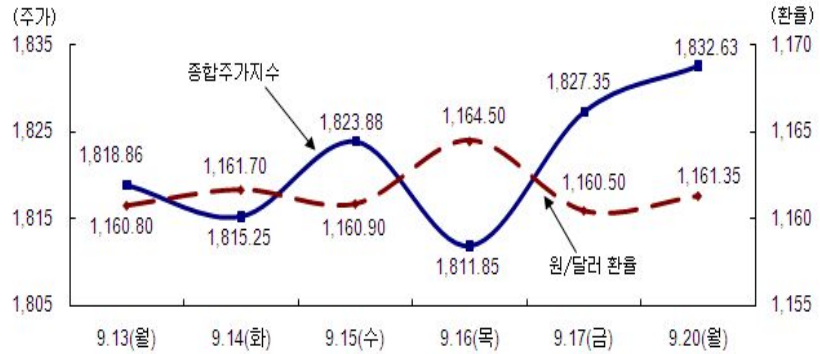
10-36(통권 416호)
2010.9.20



■ 2011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지속 성장을 위한 분수령이 될 2011년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13~9.2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1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지속 성장을 위한 분수령이 될 2011년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현 안 분 석 실 (2072-6218, limhj9@hri.co.kr)
 정 책 연 구 실

Executive Summary

□ 2011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2011년 대외 경제 여건

세계 주요국 경기 상승세 둔화 :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역시 성장률이 하락되나 선진국 보다는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세계 교역 증가 속도 둔화 : 신흥국 중심의 세계 경제 성장이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0년 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여 교역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세 지속 : 완만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세 미흡,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당분간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국내 경제 부문별 경제 전망

2011년 한국 경제 4.3% 성장 예상 : 세계 경제 상승세 약화와 내수 경기 둔화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 5.9%에서 4.3%로 하락.

소비 증가폭 축소 : 2011년 민간소비는 고용증가, 처분가능소득 증가 등에도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등에 따라 3%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둔화 : 수출 증가 지속과 신성장 동력 투자 등으로 투자 요인이 있으나 2010년 높은 투자 증가율에 따라 2011년에는 8% 대로 낮아질 전망.

건설투자는 침체세 지속 : 공공부문 토목건설 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세가 이어질 전망.

경상수지 흑자 축소 :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더 높아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전망.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 :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내수 약화, 원화 절상 추세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고용은 양적 지표 개선세 유지 : 4%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에 따라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하락할 전망.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 : 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2010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

■ 시사점과 정책 과제

시사점 : 2011년에 국내 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속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특히, 내수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 정부 정책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또한 2011년은 경제위기 이후 5%내외의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국면 전환의 시점이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함.

정책과제 : 기업투자 활성화, 신중한 금리 인상 정책,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원화 환율의 안정성 제고, 수출 다변화 지속, 남북관계 안정 등이 요망.

- **첫째, 기업의 투자 유지책 지속.** 성장 잠재력 향상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 증가에 필요한 규제 개선 정책 지속.
- **둘째, 신중한 금리 인상.** 대외 여건 악화, 서민들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
- **셋째,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고용 확대, 저소득 계층 보호,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확대 재정 기조를 유지. 단,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세수 기반 확대 등으로 재정구조 악화는 방지.
- **넷째, 원화 환율의 안정성 제고.** 해외 투기성 자금에 대한 경보시스템 구축, 외환보유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
- **다섯째, 수출다변화 정책 강화.** 세계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성장세가 높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경제 협력 강화와 기업들의 진출 지원을 확대.
- **여섯째, 남북 관계 안정화 기반 정착.** 남북 경제협력 관계 복원과 증진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해소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제 심리를 제고 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 2011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구 분		2009	2010(E)			2011(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2	7.6	4.1	5.9	4.3	
	민간소비 (%)	0.2	5.0	3.4	4.2	3.8	
	건설투자 (%)	4.4	-0.7	1.0	0.2	1.5	
	설비투자 (%)	-9.1	30.1	9.9	20.0	8.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426.7	116.7	113.0	230.0	110.0
		무역수지 (억 \$)	404.5	173.0	147.0	320.0	200.0
	수출 (억 \$)	3,635.3	2,213.4	2,362.0	4,575.0	5,069.0	
	증가율 (%)	(-13.9)	(34.3)	(18.8)	(25.8)	(10.8)	
	수입 (억 \$)	3,230.8	2,040.1	2,215.0	4,255.0	4,869.0	
	증가율 (%)	(-25.8)	(40.3)	(24.6)	(31.7)	(14.4)	
소비자물가 (평균, %)		2.8	2.8	3.0	2.9	3.0	
실업률 (평균, %)		3.6	4.1	3.5	3.8	3.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4	1,154.4	1,164.2	1,159.3	1,090.0	
국고채 수익률(3년)		4.0	3.9	3.8	3.9	4.3	

I. 2010년 경제 특징과 문제점

○ 국내 경제는 2010년에 빠른 경기 회복, 내외수 동반 경기 상승, 확장형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의 특징을 나타냄

- **빠른 경기 회복** :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G20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성장률 기록 예상
 ·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10년 한국 경제 성장률(6.1%)은 중국(10.5%), 인도(9.4%), 브라질(7.1%), 터키(6.3%)에 이어 G20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고 선진국 중에서는 1위임

- **내외수 동반 경기 상승** :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회복
 · 수출증가율 2009년 -13.9%에서 2010년 1/4분기 35.8%, 2/4분기 33.1%, 3/4분기(7~8월) 28.0% 기록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009년 0.2%와 -9.1%에서 2010년 4.2%, 18.0%로 증가 예상

- **확장형 경상수지 흑자 전환** :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
 · 수출은 2010년 1~8월까지 2,990.1억 달러 기록하여 32.5% 증가, 수입은 같은 기간 2,746.7억 달러로 37.0% 증가
 ·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243.4 억 달러와 175.5(1~7월) 억 달러 흑자

○ 양적 지표 경기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나타냄

- **체감 경기 회복 미흡** :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아짐
 ·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4분기 8.1%, 2/4분기 7.2%인데 비해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8.9%와 5.4%를 기록

-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 :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큰 폭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어짐
 · 서비스 수지는 2009년에 172.0억 달러 적자였으나 2010년에도 118.7(1~7월)억 달러의 적자 기록

- 고용의 질적 개선 부진 : 실업률이 3%초반으로 하향 안정되었으나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점은 상존
 - 실업률은 2009년 3.6%에서 2010년 8월 현재 3.3%로 낮아짐.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7.0%로 평균 실업률보다 2.1배 높음
-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 대외 경제 충격에 따라 국내 환율과 주가가 급등락 함
 -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건 발생으로 당시 국내 주가가 5월 26일 1,582.1까지 하락하며 이전 고점인 4월 30일 1,741.6대비 9.2%하락
 - 원화 환율은 5월 26일 1,253.3원까지 상승하여 이전 저점인 4월 26일 1,104.1원 대비 13.5% 통화 가치 하락하여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큰 폭으로 급등락

<국내 경제 부문별 실적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

성장률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내수	민간소비	1.3	-4.4	-1.0	0.7	5.8	0.2	6.3	3.7	-
	건설투자	-2.8	2.8	5.1	4.4	5.0	4.4	2.3	-2.9	-
	설비투자	-1.0	-23.1	-17.3	-7.0	13.3	-9.1	29.2	30.2	-
외수	경상수지	-57.8	86.2	131.0	104.0	105.6	426.7	13.4	103.3	58.8
	무역수지 (통관기준)	-132.7	30.0	163.9	99.4	111.2	404.5	29.8	143.6	72.3
	수출 (증가율)	4,220.1 (13.6)	744.2 (-25.2)	903.6 (-21.1)	947.8 (-17.6)	1,039.7 (11.7)	3,635.3 (-13.9)	1,010.9 (35.8)	1,202.5 (33.1)	779.1 (28.0)
	수입 (증가율)	4,352.8 (22.0)	714.2 (-32.7)	739.7 (-35.6)	848.5 (-31.0)	928.5 (1.4)	3,230.8 (-25.8)	981.1 (37.4)	1,059.0 (43.2)	706.9 (28.3)
	서비스수지 (증가율)	-166.7 (-15.7)	-19.3 (-61.0)	-41.7 (-6.6)	-53.3 (-8.6)	-57.7 (302.0)	-172.0 (3.2)	-60.4 (213.6)	-41.7 (0.0)	-16.6 (-12.5)
	고용	실업률	3.2	3.8	3.8	3.6	3.3	3.6	4.7	3.5
	청년실업률	7.2	8.6	8.0	8.1	7.6	8.1	9.5	7.7	7.0

주 : 1) () 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경상수지와 서비스수지 3/4분기는 7월 자료임.
 3) 수출입과 무역수지 3/4분기는 7월과 8월의 합계임.
 4)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3/4분기는 8월 수치임.

II. 2011년 경제 전망

1. 2011년 대외 여건 변화

1) 세계 경기 :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세 둔화

- 2011년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역시 성장률이 하락하나 선진국 보다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선진국 : 경제성장률이 2011년에 2.4%로 2010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
 - 미국 : 미국 경제는 2011년에 3%내외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2%로 예상
 - 일본 : 2%내외 성장 전망. IMF와 OECD는 각각 2011년 일본 경제성장률을 1.8%, 2.0%로 예상
 - 유럽 : 1~2%의 성장 전망. IMF는 유로경제가 2011년에 1.3% 성장 예상, OECD는 IMF 전망치 보다 높은 1.8% 성장 전망
 - 신흥개도국 :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6.4%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나 전년에 비해서는 하락 전망
 - 중국 : 중국 경제는 2011년에도 9% 후반 성장 전망. IMF와 OECD는 각각 중국의 2011년 경제성장률을 9.6%, 9.7%로 예상
 - 인도 : IMF는 2011년에 8.4% 성장 전망
 - 아세안5¹⁾ : 2011년 성장률은 5.5%로 전년 대비 0.9%p 낮은 수준 기록 전망
 - 중동 : 2011년 경제성장률이 4.9%로 2010년에 비해 0.4%p 상승 전망

< IMF와 OECD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IMF	OECD	IMF	OECD
세계	-0.6	4.6	4.6	4.3	4.5
선진국	-3.2	2.6	-	2.4	-
미국	-2.6	3.3	3.2	2.9	3.2
일본	-5.2	2.4	3.0	1.8	2.0
유럽	-4.1	1.0	1.2	1.3	1.8
신흥개도국	2.5	6.8	-	6.4	-
중국	9.1	10.5	11.1	9.6	9.7
인도	5.7	9.4	-	8.4	-
아세안5	1.7	6.4	-	5.5	-
중동	2.4	4.5	-	4.9	-
세계 교역량	-11.3	9.0	-	6.3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0;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0.

주 : 1) 세계 경제성장률 OECD 수치는 OECD 평균을 의미.

2) IMF의 중동 수치는 북아프리카(North Africa)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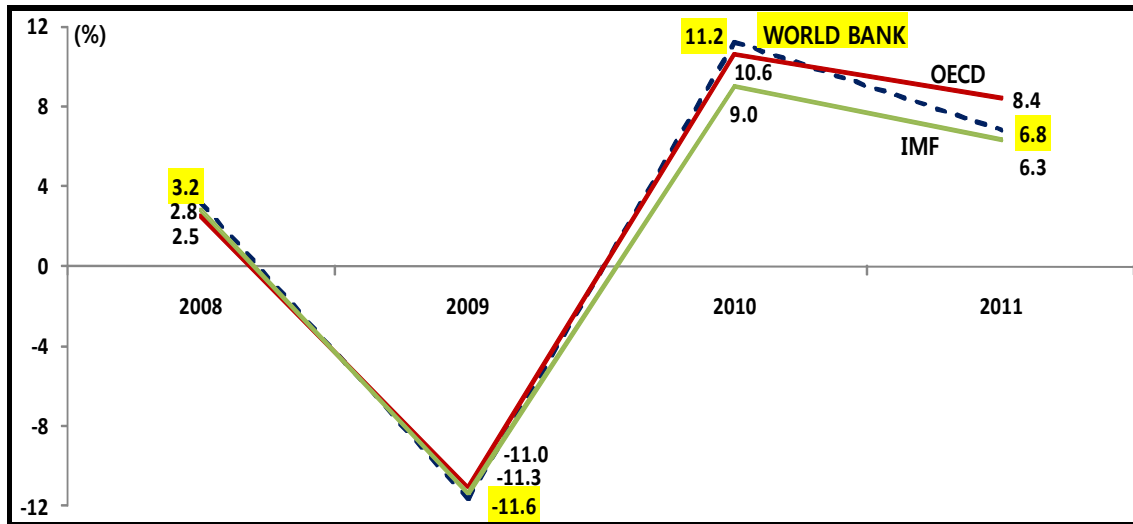
1)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의미.

2) 세계 교역 : 세계 교역 증가 속도 둔화

○ 신흥국 중심의 세계 경제 성장이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0년 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 교역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

- OECD, World Bank, IMF에 따르면 2011년 세계 교역량 전망은 각각 8.4%, 6.8%, 6.3%로 2010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주요기관의 세계 무역량 전망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0. OECD, *Economic Outlook No.87 June 2010*.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Summer 2010*.

- 2011년에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둔화로 선진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신흥국 보다 낮을 전망

< IMF의 세계 수출입 전망과 한국 수출입 비교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세계 무역증가율	2.8	-11.3	9.0	6.3	
수출	선진국	1.8	-12.6	8.2	5.0
	신흥국	4.5	-8.5	10.5	9.0
수입	선진국	0.6	-12.0	5.4	4.6
	신흥국	8.5	-8.4	9.7	8.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0.

3) 국제 원자재 : 가격 상승세 지속

○ 세계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Dubai유는 2010년 8월 배럴당 평균 74.17 달러로 6월 74.05 달러 이후 상승세를 지속
 - 서부텍사스(WTI)유는 2010년 8월 배럴당 평균 76.61 달러로 5월 73.71 달러 이후 상승세
-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에 따르면 Dubai유는 2010년에 연간 기준 배럴당 평균 78.82달러에서 2011년에는 평균 88.7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고유가 기준의 경우 Dubai유가는 2010년 배럴당 평균 81.84달러에서 2011년 111.63달러로 급등할 전망

< CERA 유가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Dubai 유	고유가	61.68	75.97	78.06	84.85	88.48	81.84	111.63
	기준유가				78.81	82.43	78.82	88.70
	저유가				72.57	72.78	74.84	79.76
WTI 유	고유가	61.74	78.83	77.80	88.00	91.00	83.91	114.50
	기준유가				82.00	85.00	80.91	91.75
	저유가				75.75	75.33	76.93	82.58

자료 :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주 : 기간 중 일일 종가의 평균치이며, 전망시기는 2010년 8월 2일임.

- 곡물, 원유, 금속 등의 주요 17개 품목의 상품선물 시세를 나타내는 CRB지수 역시 상승세 지속
 - CRB지수는 2009년 1/4분기말 220.4에서 2010년 9월 초 274.3으로 상승
-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 이상 기후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 등으로 2011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

(단위 : p, 달러/트로이 온스, 달러/파운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CRB	229.5	220.4	250.0	259.4	283.4	283.4	273.3	258.5	274.4	264.2	279.6
금	883.6	922.6	927.1	1008.0	1095.2	1095.2	1113.3	1245.5	1181.7	1248.3	1275.6
구리	141.0	184.9	227.2	281.9	334.7	334.7	356.3	295.1	332.0	336.9	352.2

자료 : Reuter EconWins,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주 : 1) 수치는 연말, 월말, 분기는 3월, 6월, 9월, 12월 말 수치임. 2) 9월은 9월 17일 기준.

2) 단위 : CRB는 지수(p), 금은 달러/트로이 온스, 구리는 달러/파운드.

4) 주요국 환율 : 달러 약세 기조 점진적 약화

○ 글로벌 달러화는 2011년 중 미국 경제의 부진에 따라 약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

- 글로벌 달러 :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세 둔화,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당분간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가 개선될 경우 달러 약세 기조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유로 : 유로존 양극화 심화, 재정적자 감축을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상존 등으로 최근 유로화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달러/유로는 최근 수준에서 등락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엔화 : 엔고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일본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탈로 인해 엔화의 추가적 강세는 제한적임
 - 이에 따라서 2011년 엔/달러는 점차적으로 상승할 전망
- 위안화 : 대외 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수출 감소 우려로 위안화 절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할 전망이나 향후 미국의 절상 압박 강화 등에 따른 정치적 압력으로 위안/달러는 점진적으로 절상세가 유지될 전망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1.2436	1.2658	1.2550	86.75	86.83	91.92	6.68	6.62	6.49
최 고	1.3600	1.3500	1.3800	95.00	95.00	106.00	6.80	6.75	6.64
최 저	1.1500	1.1200	1.1000	79.00	78.00	78.00	6.60	6.50	6.30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14개 국제투자은행의 9월 2-13일 전망치를 이용

2. 2011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1) 소비 : 소비 증가폭 축소

○ 2010년 경기회복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

- 2009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0.2%에 그쳤으나, 2010년 1/4분기 6.3%, 2/4분기 3.7%의 증가세를 보임

○ 2011년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 처분가능소득 회복 등에 힘입어 3.8%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고용 증가 : 2011년 경제성장률이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용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취업자수가 2010년 1/4분기 13.2만명, 2/4분기 43.3만명 증가하였고, 7~8월 에도 각각 47.3만명, 38.6만명 증가
- 처분가능소득 증가 : 고용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09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0.9%에 그쳤으나, 2010년 7.2%, 2/4분기 6.8% 증가

< 민간소비와 고용, 소득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천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연간	1/4	2/4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1.3	-4.4	-1.0	0.7	5.8	0.2	6.3	3.7
취업자 증가수	145	-146	-134	-1	-6	-72	132	433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6.1	-0.1	-0.1	-0.5	4.5	0.9	7.2	6.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2011년 민간소비 성장률은 3.8%로 전망

<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1.3	0.2	5.0	3.4	4.2	3.8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 설비투자 : 큰 폭의 하향 조정

○ 2010년에는 국내경제의 빠른 회복과 수출 호조 속에서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함

- 전년도 투자부진의 기저효과와 국내 경제의 빠른 회복, 신흥국에 대한 수출 호조, IT 및 자동차 업종의 호황 등으로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2010년 국민계정 내 설비투자는 1/4분기 29.9%, 2/4분기 29.0% 증가

○ 2011년은 올해의 설비투자 급증에 따른 조정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의 지속과 민간투자에 대한 기대로 8% 대의 설비투자를 유지할 전망

- 설비투자 조정압력 하락 : 올해의 설비투자 증가로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하락하고 선행지수도 급락하고 있음
-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10년 1/4분기 21.7%p, 2/4분기 14.3%p, 7월 9.5%p로 하락
- 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도 2010년 7월에 -21.7%로 급락

<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수 추이 >

(전년동기대비, %, %p)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연간	1/4	2/4	6월	7월
선행 지수	설비투자조정압력	-1.9	-19.1	-8.9	1.2	12.8	-4.0	21.7	14.3	11.7	9.5
	국내기계수주	-13.8	-35.5	-17.7	3.4	20.0	-11.8	10.5	24.0	1.8	-21.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설비투자 조정압력(%p) = 제조업 생산증가율(%) - 제조업 생산능력증가율(%)

- 불안한 세계경기 속 수출 증가 : 2011년 세계경기는 미국과 유럽에 불안요인이 많지만, 중국 아세안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 감세 이후 민간투자 요구 : 법인세 인하에 따른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등 2011년에도 민간투자에 대한 기대와 압력은 여전히 높을 전망

<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설비투자	-1.0	-9.1	30.1	9.9	20.0	8.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3) 건설투자 : 침체세 지속

○ 건설투자는 2010년 2/4분기부터 시작된 부진 추세를 이어감

- 국민계정 상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3%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4분기에는 -2.9% 감소로 반전

○ 2011년에도 선행지표 하락세, 민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세가 이어질 것이나, 공공부문 토목건설투자의 증대로 2010년보다는 회복될 전망

- **선행지표 하락:** 건설수주 증가율이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한데 이어 2/4분기에도 -6.6%로 2분기 연속 감소
- **민간 부동산경기 침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물량 증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부진 등으로 민간 부동산경기 침체 추세 지속
- **4대강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 :** 2011년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9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며,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SOC 사업 계속
 - 4대강 살리기,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므로 당분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에 의존할 전망

< 건설투자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2.8	4.4	-0.7	1.0	0.2	1.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4) 대외 거래 : 경상수지 흑자 축소

○ 2010년에는 신흥국 중심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수요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

- 2010년 1/4분기 경상수지는 13.4억 달러, 2/4분기 103.4억달러로 7월까지 총 175.5억 달러의 흑자 기록

- 한편 무역수지는 2010년 1/4분기에 29.8억 달러, 2/4분기 143.6억달러로 8월까지 총 228.4억 달러의 흑자 기록

○ 2011년에는 신흥국 중심의 경제 회복 지속이 예상되나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수출 증가율 보다 높아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전망

- 수출 :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되나 증가율은 10%내외로 하락
 · 2011년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흥국 중심의 꾸준한 수출 수요 증가 예상
 · 하지만 선진국 경기 둔화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저하로 2011년 수출 증가율은 10.8%로 2010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전망

- 수입 : 내수 경기의 꾸준한 회복과 국제 원자재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보다 높을 전망
 · 국제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

- 따라서, 2011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200억 달러, 110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2010년 대비 대폭 축소될 전망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58	427	116	113	230	110
무역수지	-133	405	173	147	320	200
수출 (통관)	4,220 (13.6)	3,635 (-13.9)	2,213 (34.3)	2,362 (18.8)	4,575 (25.8)	5,069 (10.8)
수입 (통관)	4,353 (22.0)	3,231 (-25.8)	2,040 (40.3)	2,215 (24.6)	4,255 (31.7)	4,869 (14.4)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주 : 2010년 하반기부터는 현대 경제연구원 전망치임.

5) 물가 : 물가 안정세 유지

○ 국내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원자재와 곡물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 압력 약화로 안정세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는 2010년 1/4분기 2.7%, 2/4분기 2.6%로 안정세 지속
-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9년 4/4분기 2.4%에서 2010년 1/4분기 1.9%, 2/4분기 1.6%로 하락세

< 주요 물가 지표 상승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6월	7월
소비자물가	4.7	3.9	2.8	2.0	2.4	2.8	2.7	2.6	2.6	2.6
근원물가	4.2	4.9	3.9	3.0	2.4	3.6	1.9	1.6	1.7	1.7
생활물가	5.4	3.0	1.8	1.1	2.4	2.1	3.4	2.9	2.8	2.7

자료 :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는 원자재가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 약화, 원화 절상 추세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내수약화 : 소비와 투자 모두 2010년 보다 증가세가 약화될 전망
- 원화가치 상승 : 국제 원유와 원자재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원화 절상으로 상승 압력이 약화될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과 유사한 3%내외에 머물 전망

< 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소비자물가	4.7	2.8	2.8	3.0	2.9	3.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6) 고용 : 고용 양적 지표 개선세 유지

○ 2010년 경기회복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하락세를 나타냄

- 2009년 취업자가 전년대비 7.2만명 감소하였으나, 2010년 1/4분기 13.2만명, 2/4분기 43.3만명 증가하였고,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됨
- 공공부문 취업자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축소(2009년 25만명→2010년 10만명)로 2010년 2/4분기 0.9만명 증가에 그쳤고, 7월~8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면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수출을 비롯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2010년 2/4분기 45.4만명, 7월 65.8만명, 8월 59.9만명 증가함
- 실업률은 2009년 3.6%에서 2010년 1/4분기 구직활동 증가로 4.7%로 상승했다가 취업자 증가로 2/4분기 3.5%로 하락함
- 반면 청년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0년 1/4분기 1.2만명, 2/4분기 5.8만명, 7월 1.8만명, 8월 5.5만명 줄어들음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천명,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취업자증가수	145	-146	-134	-1	-6	-72	132	433	473	386
청년총	-119	-212	-99	-123	-77	-127	-12	-58	-18	-55
실업률	3.2	3.8	3.8	3.6	3.3	3.6	4.7	3.5	3.7	3.3
청년총	7.2	8.6	8.0	8.1	7.6	8.1	9.5	7.7	8.5	7.0

자료 : 통계청

○ 2011년 4%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에 따라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도 하락할 전망

- 취업자의 꾸준한 증가로 2011년 실업률은 2010년보다 낮아진 3.5% 기록 전망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천명,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실업률	3.2	3.6	4.1	3.5	3.8	3.5

자료 : 통계청

주 : 2010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7) 원화 환율 : 원화 가치 상승세 지속 전망

○ 원/달러는 유럽 재정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5월 말 급등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며 원화 가치가 상승

- 원/달러 :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지속, 특히 차이나 머니의 국고채 매수 등으로 하반기에 원/달러가 하락하며 원화 가치 상승
 - 환율은 3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4월 26일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며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5월 26일 1,253원까지 상승하며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
 - 그러나, 7월 1일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전환되어 원화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되며 9월 17일 기준 1,161원까지 하락
- 원/엔 :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통화로서 엔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국 외환보유액 다각화 수요 등으로 인해 초엔고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원/엔 환율도 급등
 - 원/100엔 환율은 엔화 강세에 힘입어 상반기 하락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며 9월 1일 1,423원까지 상승했다가 9월 17일 기준 1,355원을 나타냄

<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 현황 >

	2008년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1/4분기	상반기	7월	8월
원/달러	1,103	1,418	1,286	1,239	1,168	1,276	1,143	1,165	1,154	1,205	1,180
원/100엔	1,077	1,510	1,323	1,325	1,302	1,363	1,261	1,264	1,263	1,378	1,380

자료 : 한국은행
주 : 평균 환율임.

○ 2010년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원화 가치 상승세는 2011년까지 이어질 전망

-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내 경제 성장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금리인상 등으로 원화 가치 상승세는 2011년까지 지속될 전망
 - 2010년 7월 현재 BIS와 OECD 실질실효환율지수가 한국은 각각 84.7, 79.2를 기록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5% 내외 추가 하락할 여지가 존재

8. 금리 :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회복으로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

○ 2010년 국내 경기의 상승세와 7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7개월 연속 2.0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국내 경기의 상승세 지속과 물가 상승세를 반영하여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함
- 유럽 등 해외경기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외국인채권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시중금리는 하락세를 지속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09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며, 2010년 초 4.44%로 시작하였으나 9월 15일 현재 3.43%를 기록
 - 회사채 3년물 AA-금리도 2009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 초 5.56%에서 9월 15일 현재 4.36%로 떨어짐
 - 3개월 CD금리도 2010년 1/4분기 평균 2.86%에서 이후 6월 중 2.45%로 하락하였으나, 7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하여 9월 15일 현재 2.66%를 기록

< 기준금리와 주요 시중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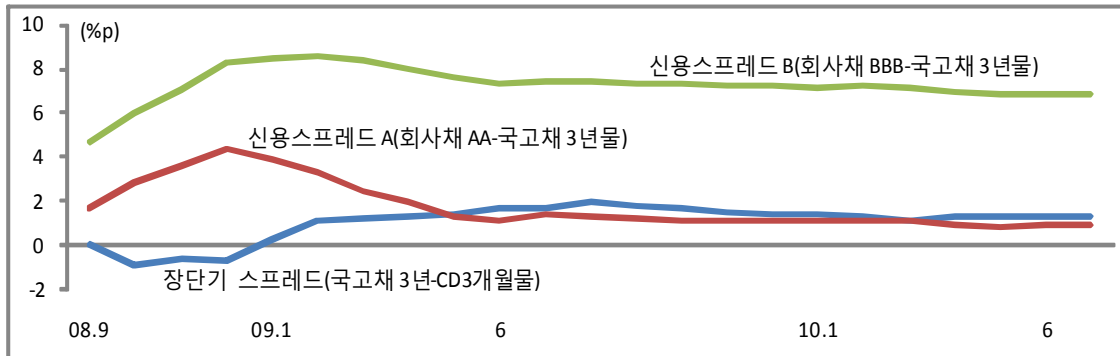
(%)

구 분	2008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기준금리	3.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25	2.25
국고채3년	5.27	3.64	3.89	4.30	4.34	4.04	4.14	3.74	3.88	3.73
회사채 AA-	7.02	6.85	5.35	5.59	5.46	5.81	5.25	4.61	4.81	4.68
BBB-	9.86	12.16	11.55	11.72	11.62	11.76	11.31	10.64	10.75	10.62
CD	5.49	2.79	2.41	2.51	2.80	2.63	2.86	2.47	2.58	2.63

자료 : 한국은행, Ecos.

- 금융위기 이후 높아졌던 금리 스프레드도 신용위험과 장기금리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축소
 - 장단기 및 신용 금리 스프레드 모두 2010년 1월 보다 하락하고 있으며, 회사채 3년물 AA와 국고채 3년물 간 신용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그러나, 회사채 3년물 BBB-와 국고채 3년물 간 신용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아 비우량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장단기 및 신용 금리 스프레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월평균 금리 적용.

○ 2011년에는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세 지속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2010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

- 기준금리 추가적 인상 압력 가중

· 지수 증가율은 하락 하더라도 국내 경기 회복과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시중금리는 기준 금리 인상에도 가계 부채 증가, 해외 경기의 불확실성 상존 등이 시중금리의 인상폭을 제한할 것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0년 연평균 3.9%에서 2011년에는 4.3%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금리스프레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임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과 경기회복 기조에 따른 신용위험 하락 등으로 장단기, 신용 금리스프레드 모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임

<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 >

(평균,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고채 3년	5.3	4.0	3.9	3.8	3.9	4.3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III.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시사점) 2011년에 국내 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의 상대적 악화속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2010년 5.9%에서 2011년에는 4.3%로 하락할 전망
 - 특히, 내수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 정부 정책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2011년은 경제위기 이후 5%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국면 전환의 시점이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함

- (정책과제) 기업투자 활성화, 신중한 금리 인상 정책,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원화 환율의 안정성 제고, 수출 다변화 지속, 남북관계 안정 등이 요망됨
 - 기업의 투자 유지책 지속
 - 성장잠재력 향상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 증가에 필요한 규제 개선 정책 지속
 - 신중한 금리 인상 추진
 - 대외 여건 악화, 서민들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
 -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 고용 확대, 저소득 계층 보호,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확대 재정 기조 유지
 - 단, 공공 부문의 효율성 제고, 세수 기반 확대 등으로 재정구조 악화 방지
 - 원화 환율의 안정성 제고
 - 해외 투기성 자금에 대한 경보시스템 구축, 외환보유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
 - 수출다변화 정책 강화
 - 세계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성장세가 높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경제 협력 강화와 기업들의 진출 지원 확대
 - 남북 관계 안정화 기반 정착
 - 남북 경제 협력 관계 복원과 증진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해소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제 심리를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2011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구 분		2009	2010(E)			2011(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0.2	7.6	4.1	5.9	4.3
	민간소비(%)	0.2	5.0	3.4	4.2	3.8
	건설투자(%)	4.4	-0.7	1.0	0.2	1.5
	설비투자 (%)	-9.1	30.1	9.9	20.0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426.7	116.7	113.0	230.0	110.0
	무역수지 (억 달러)	405.0	173.0	147.0	320.0	200.0
	수 출 (억 달러)	3,635.3	2,213.4	2,362.0	4,575.0	5,069.0
	(증가율, %)	-13.9	34.3	18.8	25.8	10.8
	수 입 (억 달러)	3,230.8	2,040.1	2,215.0	4,255.0	4,869.0
	(증가율, %)	-25.8	40.3	24.6	31.7	14.4
소비자물가(평균, %)		2.8	2.8	3.0	2.9	3.0
실업률(평균, %)		3.6	4.1	3.5	3.8	3.5
원/달러 환율(평균, 원)		1,276.4	1,154.4	1,164.2	1,159.3	1,090.0
국고채 수익률(3년)		4.0	3.9	3.8	3.9	4.3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0.0	-4.0	-6.8	-2.6	-4.9	-0.7	1.6	5.0	3.3	3.7	1.6
유로 지역	0.6	-0.4	-1.9	-4.1	-2.5	-0.1	0.4	0.0	1.0	0.2	1.0
일본	-1.2	-5.4	-10.0	-5.2	-16.6	10.4	-1.0	-4.1	2.4	4.4	0.4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5	11.9	10.3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5.9	8.1	7.2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9월10일	9월2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79	2.74	-0.05p
	엔/달러	90.76	96.65	92.93	84.28	85.72	1.44 ¥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2716	1.3045	0.0329\$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0,463	10,608	145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239	9,626	38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40	3.48	0.08%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65.7	1,161.3	-4.4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802.6	1,832.6	30p

주: 9월 20일 해외지표는 9월 17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9월10일	9월2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6.45	73.63	-2.82\$
	Dubai	36.45	71.85	78.06	-	76.26	-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5.14	279.65	4.5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